

東北亞 經濟協力 構圖와 韓國-臺灣 協力の 方向

吳 勇 錫

- I. 序 論
- II. 東北亞 經濟協力圈의 構圖
- III. 東北亞 經濟協力の 可能性과 接近戰略
- IV. 東北亞의 多角構圖에서의 韓國-臺灣의 協力方向
- V. 結 論

I. 序 論

韓國經濟를 比較論的 觀點에서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臺灣經濟이다. 그만큼 韓國과 臺灣은 經濟的으로 많은 密接性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는 어떠한 政治 外交的 斷絶과 葛藤의 관계에 놓인다 하더라도 經濟的 密着關係를 끊을 수는 없다. 지난 1년간 政治·外交的 斷絶의 波長으로 일시적 經濟交流의 脈이 끊기기는 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政治外的 交流關係의 回復은 그것이 긴 歷史關係 속에서 하나의 龜裂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立證한다. 韓國과 臺灣은 經濟構造的으로 世界市場에서 치열한 競爭關係에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相互補完性을 가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두 나라 교류

관계의 정상화는 이러한 상호보완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식의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世界經濟 秩序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특히 地域協力の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擡頭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經濟交流의 非對稱性이 강한 雙務的 經濟關係가 多角的 經濟協力體制로 移行되고 있음을 말한다. 韓國과 臺灣이 속한 東北亞地域은 지역내 국가들의 經濟的 隔差와 冷戰的 對立과 葛藤構造 아래서 형성된 交流障壁 때문에 지금까지 多角的 協力の 構圖를 導出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데올로기적 對立과 葛藤構造가 解體되고 經濟的 實利爲主의 交流가 擴大되면서 東北亞地域에도 多者間 協力構圖를 그려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東北亞地域에는 世界秩序에 影響力이 큰 經濟大國, 軍事大國 및 政治大國들의 布陣으로 霸權主義的 支配構造가 尙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韓國과 臺灣의 經濟協力は 양국간 雙務關係에서 惹起될 수 있는 非對稱性을 克服하고 域內 霸權主義的 支配從屬構造의 定着을 抑制하기 위해 東北亞地域의 多角的 協力構圖 안에서 새롭게 再構築해 나갈 필요가 있다.

II. 東北亞 經濟協力圈의 構圖

東北亞 經濟協력에 관해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地域 經濟協力圈의 範圍를 어떻게 定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地理學的으로 아시아는 自然과 人文을 고려하여 北部아시아(시베리아), 中央아시아(內陸아시아), 東아시아(中國大陸, 韓

半島 및 日本列島), 東南아시아(인도차이나半島, 말레이諸島), 南部아시아(印度大陸), 및 西南아시아(中東)의 6개 地域으로 나누어져 왔을 뿐 東北아시아는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地理學에서 東北아시아는 東아시아의 北部인지 東아시아와 北部아시아를 통틀어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다. 최근에 “東北亞經濟圈” 또는 東北亞地域經濟協力이라는 문제가 擧論되면서 이 地域의 範圍가 學者들에 따라서 달리 定義되고 論難의 여지가 많은 까닭은 地理學的으로 명확한 概念定義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東北아시아에 대한 地理學的인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東北아시아라는 말은 매우 普遍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東北아시아로 理解되고 있는 地域은 위의 地理的 區分에서의 東아시아와 일치하는 지역이다. 즉, 中國大陸, 韓半島 및 日本列島를 東北아시아로 보고 東北아시아와 東南아시아를 통틀어 東아시아로 본다. 國際政治學者들이 南·北韓, 日本 및 中國을 東北아시아 國家로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論議가 활발해지면서 太平洋과 印度洋이 갈리는 말레이시아半島 西岸을 기준으로 한 북위 98도 선에 의해서 아시아를 동·서로 나누고, 北回歸線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아시아를 4분하여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東北아시아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 포함되는 지역은 韓半島, 日本列島, 中國 東部(臺灣, 홍콩 포함), 시베리아 동부 및 몽골이다. 經濟協력을 前提로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地域 範圍는 매우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된다.

地域經濟協力에 관한 意思決定이 政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더욱이 그것이 經濟統合의 차원에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할 때,

해당 지역 각국 政府의 役割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經濟協力을 전제로 한 地域의 範圍는 단순히 地理的 位置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地域協力の 決定權을 갖는 政府가 管轄하는 전체 國家 단위로 넓게 定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中國과 러시아는 領土의 範圍가 東北아시아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미치고 더욱이 러시아의 行政的 中心은 東北아시아에 있지 않다. 그러나 中國과 러시아 領土의 거의 대부분이 東北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東北亞 地域에 포함시켜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東北亞 經濟協力圈의 構圖는 域內經濟의 相互依存關係의 深化過程을 통해 經驗的 또는 事後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域內外 經濟環境 變化에 적응하기 위해 人爲的으로 構築하고자 하는 일종의 先驗的 經濟協力圈이다. 사실, 國際經濟交流의 可變性과 動態性에 비추어 볼 때 地理的 範圍만을 가지고 人爲的이고 先驗的인 經濟協力圈을 設定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前例없는 經濟協力圈을 設定하는 것은 東北亞地域의 特殊性 때문이다. 이 特殊性을 고려한 것이 東北亞 經濟協力圈의 分化이다. 먼저 經濟協力 可能性의 範圍를 기준으로 하여 狹義의 東北亞와 廣義의 東北亞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은 동북아시아의 經濟協力을 地域과 國家 單位를 기준으로 하여 段階的으로 接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많은 이 지역에서 일단 政治問題를 排除하고 순수한 經濟協力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狹義의 東北亞는 經濟的 相互性이 비교적 큰 地域으로 韓國, 北韓, 中國 東部地域, 臺灣, 香港, 日本 및 러시아 極東地域을 가리킨다. 이 狹義의 東北亞는 內包的 協力圈의 概念으로 파악될 수 있다. 東北亞 經濟協力的 本格化 段階는 이 內包的 協力圈을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경

제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東北亞의 복잡한 力學構圖로 인해 狹義의 東北亞나 內包的 協力圈이라 해도 多角的 協력이 이루어질 與件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 이미 상호간의 經濟交流가 擴大되고 있는 地域을 核心的 協力圈으로 하여 東北亞 經濟協力の 中核의 역할을 담당하고 협력의 범위를 內包的 協力圈으로 擴散시켜나가게 할 필요가 있다. 核心的 協力圈에 포함되는 나라와 지역의 범위는 韓國, 臺灣, 中國 東北3省과 沿岸開放地域, 香港 및 日本이다. 核心的 協力圈은 東北亞 經濟圈의 형성에 앞서 黃海를 끼고 있는 地理적 近接性과 漢字文化圈의 共通性을 가진 中國, 臺灣, 香港 및 南北韓을 하나의 經濟圈으로 만들자는 “還黃海 經濟圈”과 같은 脈絡이다. 그러나 域內概念에서 核心的 協力圈은 日本을 포함하고 있으나 還黃海 經濟圈은 日本을 제외하고 北韓을 포함한 것에 차이가 있다. 日本이 포함된 “黃海 및 渤海 經濟圈”과 “還東海(日本海) 經濟圈”에는 臺灣과 香港이 배제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核心的 協力圈과 역시 다르다.

廣義의 東北亞는 앞의 人文地理的 區分에 따라 東아시아와 北部아시아를 합친 지역으로 定義한다. 이 定義에 따르면 東北아시아는 북쪽은 北極海, 동쪽은 太平洋 沿岸, 남쪽은 南支那海에 면하고, 서쪽은 우랄산맥에 이르는 지역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國家(또는 獨立的 統治地域)는 內包的 協力圈에 포함되지 않는 中國 中西部 地域, 몽골 및 러시아이다. 廣義의 東北亞 地域에서 앞의 內包的 範圍를 뺀 지역은 外延的 協力圈이라고 할 수 있다. 外延的 協力圈은 현재는 經濟交流上의 比較優位는 없으나 長期的으로 開發潛在力이 큰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生産力과 市場의 擴張力의 증대에 따라 範圍의 經濟性 발휘 가능성이 있는 潛在的 協力圈이 곧 外延的 協

力圈이라고 하겠다.

<표 1> 東北亞 經濟協力圈의 定義에 따른 國家/地域의 面積 및 人口

	面 積 (萬 Km ²)	人 口 ¹⁾ (萬名)	人口密度 (名/km ²)
韓 國 (A)	9.9	4,407	443.7
北 韓 (B)	12.3	2,307	187.9
中 國 (C)	957.7	118,934	123.9
東北3省 및 沿岸開放地域(D)	193.6	52,860 ²⁾	273.0 42.6
西南部地域(E)	655.7	27,904 ²⁾	
臺 灣 (F)	3.6	2,075 ²⁾	576.8 ²⁾
홍 콩 (G)	0.1	5,889	5,880.0
日 本 (H)	37.7	12,491	330.6
러 시 아 (I)	1,707.5	14,804 ³⁾	8.7 ³⁾
極東地域 (J)	621.6	806 ³⁾	1.3 ³⁾
몽 골 (K)	156.5	220 ⁴⁾	1.4 ⁴⁾
核心的 地域圈 (A+D+F+G+H)	245.0 (1.8)	72,421 (13.0)	295.6
內包的 協力圈 (A+B+C-E+F+ G+H+J)	989.3 (7.3)	113,740 (20.4)	114.9
外延的 協力圈 (E+I-J+K)	1,898.1 (13.9)	42,122 (7.6)	22.2
世 界	13,625.5 (100.0)	557,595 (100.0)	40.9

주: 1) 1993년 中央推計, 2) 1992년 말 기준, 3) 1991년 말 기준, 4) 1990년 말 기준

자료: 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1993; 『中華民國統計月報』;

Goskomstat, *Narodnoe khozyaystvo SSSR*, v 1990g, 1991

III. 東北亞 經濟協力の 可能性과 接近戰略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經濟圈을 형성하거나 有機的인 經濟블럭이 이루어지기 위한 條件으로는 ① 地理的 隣接性, ② 政治制度 및 政策方向의 一致性, ③ 國家規模, 人口의 크기 및 經濟發展 程度의 類似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定說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國家나 經濟規模가 작을수록 協力の 強度는 높아진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은 위 조건 가운데서 地理的 隣接性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體制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政治制度和 政策方向의 一致性을 기대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國家規模와 人口의 크기 모두 큰 隔差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可能性이 尙存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 이유는 他地域과는 상이한 동북아지역 特有的 經濟圈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與件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여건은 이 지역의 核心的 協力圈에 속하는 국가들의 經濟的 相互補完性和 高度成長의 潛在力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 餘力은 內包的 協力圈까지 충분히 확산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外延的 協力圈까지도 파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經濟發展 程度를 核心的 協力圈으로 정의된 나라들의 1992년 1인당 國民總生産額(GNP)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日本은 最先進國으로서 絶對的 優位를 차지한다. 韓國, 臺灣 및 홍콩은 中進그룹을 형성하고 中國 沿岸開放地域은 後進地域이다. 經濟規模面에서도 日本은 동북아의 核心的 協力圈 內 GNP의 82.2%를 차지할 만큼 壓倒的인 위치에 있지만, 交易額의 46.6%로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홍콩이 中國 沿岸經濟圈에 編入되면 日本을 제외한 3者의 經濟規模는 매우 類似하게 된다.

또한 日本의 貿易依存도는 매우 낮으나 다른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높으며, 특히 對日 雙務的 貿易依存도는 모두 높다. 日本의 支配構造를 牽制하고 域內 交流의 利益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多者間 協力體制 構築은 절실하다. 그러나 이것은 동북아 협력구도에서 日本의 排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日本이 협조적 同伴者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誘導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東北亞 '核心的 協力圈'의 國民所得 水準 및 貿易規模
(1992년)

	G N P (億 달러)	1人當 GNP (달러)	輸出(f.o.b) (億 달러)	輸入(c.i.f) (億 달러)	貿易/GNP (%)
日 本	37,046	29,749	3,398.9	2,332.9	15.5
韓 國	2,945	6,749	766.3	817.8	53.8
臺 灣	2,109	10,215	814.8	720.0	72.8
홍 콩	959 ¹⁾	16,507 ¹⁾	1,207.9	1,234.3	154.6
中國東北, 沿岸開放 地域	2,163 ²⁾	409 ²⁾	606.9 ²⁾	408.9 ²⁾	51.3

주: 1) 國內總生產(GDP), 2) 1991년

자료: 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1993; 『中華民國 統計月報』;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1992; *China's Latest Economic Statistics*, 1992

東北亞地域의 國家間 경제발전 정도의 격차는 國民所得과 貿易規模 뿐만 아니라 產業構造의으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資本主義體制하에서 경제발전을 해 온 日本, 韓國 및 臺灣 經濟는 GDP 또는 GNP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 그 가운데서도 臺灣은 농업의 비중이 조금 큰 것을 제외하면 日本과 매우 비슷한 產業生産構造를 가지고 있다. 日本과 대만에 비해서 韓國은 1, 2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산업의 비

중은 낮다. 일반적으로 産業構造的 차이는 경제의 相互補完 관계의 深化를 가속시킨다. 産業구조의 차이는 社會主義體制에서 경제발전을 해 온 北方地域 經濟와 資本主義 經濟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社會主義 經濟의 産業構造的 특징은 1次産業의 비중이 높고 3次産業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데 있다. 後發 社會主義 開途國인 中國의 2次産業 비중은 韓國과 같은 수준이지만 3次産業의 비중은 韓國보다 낮다. 北韓과 몽골의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이들 經濟의 資源依存度가 그만큼 큰 것을 나타낸다. 몽골의 2차산업은 단순 原料加工業이 主宗을 이루고 3차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東北亞 經濟協力の 범위가 확대될수록 經濟의 相互補完性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표 3> 東北亞 主要國의 産業生産構造(1990년)

단위: %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農業	鑛業		製造業	
日本	3.0	2.7	0.3	41.2	32.2	55.8
韓國	9.5	9.1	0.4	44.2	29.2	46.3
臺灣	4.2	4.1		42.5	34.35	53.3
中國	28.4			44.3		22.2
北韓	51.5	27.0	24.5	18.5		30.0
몽골	48.0	28.0	28.0	50.0	33.0	2.0

주: 옛소련, 북한 및 몽골은 純物的生産額(NMP) 기준임.

자료: 統計廳, 『韓國經濟指標』 1991. 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1991.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1991; 日本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譜』 1991;

이러한 産業構造的 차이는 資本의 蓄積과 産業技術의 격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域內 경제협력의 이루어질 때, 垂直的 分業의 형태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最先進 産業高度化 단계에 있는 日本은 막대한 資本과

尖端技術을 보유하고 있으며, 韓國과 臺灣은 중간단계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다. 특히 韓國과 臺灣의 경제개발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는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응용모델로서의 適合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日本, 韓國 및 臺灣은 北方地域의 풍부한 天然資源과 中國의 勞動力을 配合하여 資源을 開發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資本과 技術을 供給하기에 매우 좋은 相互補完의 입장에 있다.

東北亞地域의 經濟協力は 결국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蓄積된 資本과 技術을 社會主義體制 아래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이용되지 못한 天然資源과 人的資源을 結合하는 데서 출발하는 垂直的 國際分業體系의 構築이다. 이러한 分業體系에서 要素의 移動性を 고려할 때, 투자 대상지역은 中國, 北韓, 러시아 및 몽골이 될 것이다. 투자의 순서는 核心的 協力圈인 中國 東北地方부터 시작하여 開發의 妥當성을 점검하면서 內包的 協力圈인 北韓 및 러시아의 極東地域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終局的으로는 外延的 協力圈에 속하는 中國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 및 몽골까지 확장함으로써 段階的 接近의 效率性を 높일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의 核心的 協力圈이 가지고 있는 潛在力은 그들 국가의 經濟成長의 力動性(dynamism)과 安定性(stability)에서도 찾을 수 있다. 向後 世界에서 가장 빠른 經濟成長을 이루어낼 수 있는 地域은 아시아-太平洋圈이며, 亞-太 地域의 經濟成長을 主導할 나라는 東北亞의 核心的 協力圈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그 가운데서 中國은 “規模의 經濟的 力動性”(economic dynamism of scale)에 의한 高度成長을 구가할 것이며, 韓國, 臺灣, 香港 및 日本은 安定的 成長의 바탕 위에서 經濟構造의 高度化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4> 東北亞 核心的 協力圈의 經濟成長 展望(WEFA 推定)

		GDP (億달러)	1人當 GDP (달러)	輸出 (億달러)	輸入 (億달러)	經常收支 (億달러)	外換 保有額 (億달러)
韓國	1993년	3,207.7	7,281	809.4	792.5	-11.1	194.4
	1998년	6,052.3	13,136	1,235.3	1,219.3	3.3	264.9
	成長率 (%)	6.5	5.6	8.6	8.6	180.4	7.5
臺灣	1993년	2,221.7	10,639	890.6	783.9	68.1	1,006.7
	1998년	4,138.6	18,663	1,865.9	1,668.2	87.9	1,318.7
	成長率 (%)	6.3	5.1	15.0	16.2	1.2	5.5
홍콩	1993년	1,104.2	18,512	1,419.3	1,506.5	-20.1	n.a
	1998년	1,967.0	30,700	2,986.8	2,998.0	82.3	n.a
	成長率 (%)	4.8	3.3	15.8	15.8	28.2	--
中國	1993년	4,938.7	416	728.2	773.8	-42.9	397.7
	1998년	7,071.7	558	1,341.0	1,421.5	-89.0	554.8
	成長率 (%)	9.5	8.1	11.6	14.2	-239.5	5.4
日本	1993년	41,945.5	33,651	3,627.2	2,197.0	1,175.6	272.5
	1998년	52,707.1	41,657	6,375.0	2,977.1	1,047.8	372.7
	成長率 (%)	2.6	2.6	7.3	5.8	-1.9	5.4
아시아	成長 率 (%)	4.5	2.8	10.7	11.0	-2.3	--
全世界	成長 率 (%)	3.3	1.2	5.8	5.6	--	--

주: 成長率은 1992년 基準 1993-98년의 平均 實質成長率임. 그의 指標은 모두 經常 價格 基準임. 外換保有額에는 金 除外

자료: The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October 1993.

中國은 핵심적 협력권에서 가장 빠른 經濟成長이 예상되는 나라이다. 中國은 非國營企業들에 의한 활발한 生産活動과 沿岸開放地域의 빠른 輸出增加에 힘입어 1991년에 7.7%, 92년에는 12.8%, 1993년 上半期에는 13.9%의 高速成長으로 第8次 5個年計劃 (8.5計劃: 1991-1995년)의 豫想 年平均 成長率 6%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8.5計劃에 修正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WEFA Group은 1993-1998년 中國의 GDP 年平均 成長率을 9.5로 예상하고 있으나 實際成長率은 그것을 훨씬 上廻할 可能性이 많다. 中國은 1993년부터 經常收支가 赤字로 轉換되면서 資本需要가 계속 增大할 것으로 展望된다.

韓國은 第6次 5個年計劃 기간(1987-1991년)에 年平均 10%의 높은 成長을 달성하였으나 1992년에는 그것이 4.7%로 낮아졌다. 그러나 '新 經濟 5個年計劃' 기간(1993-1997년) 중의 經濟恢復으로 年平均 6.7~7.0%의 成長이 예상된다. WEFA Group은 1993-1998년 韓國의 年平均 成長率을 6.5%로 보고 있으며, 1998년 經常GDP를 6,052억 달러, 1인당 GDP 수준을 1.3만여 달러로 예상하고 1996년을 經常收支 赤字轉換期로 본다.

臺灣은 1990년 民間部門의 投資와 消費 增加率의 감소로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4.4%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1-1992년에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投資마인드의 회복으로 1991년에 7.8%, 1992년에 6%의 安定的 成長을 달성하였다. 1992년은 臺灣經濟에 매우 중요한 해였다. 臺灣經濟의 3개 關門인 GNP 2천억 달러, 1인당 GNP 1만 달러, 대외무역총액 1,500억 달러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臺灣 政府機關(行政院 主計處, 經濟建設委員會)와 研究機關(臺灣經濟研究院,

中華經濟研究院)이 예상하는 1993년 臺灣經濟成長率은 1991-1992년의 중간 수준인 6.5~7.0%이다. 또한 WEFA Group은 1993-1998 대만의 年平均 GDP 成長率을 6.3%로 보고 1998년 名目 GDP를 4,139억 달러, 1인당 GDP를 1만 8,600여 달러로 예상한다. 臺灣은 홍콩과 함께 높은 貿易 增加率을 기록하면서 1993년부터 1천억 달러 이상의 세계 최대의 外換을 保有하게 될 展望이다.

홍콩경제는 4~5%의 安定的 成長趨勢를 보이는 가운데 1인당 국민 소득이 1994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1998년에는 다시 3만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완전한 先進國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WEFA Group은 1993-1998년 홍콩의 年平均 GDP 成長率을 4.8%로 예상하고 1998년 名目 GDP 수준이 1천억 달러를 넘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日本은 선진국 가운데서 보기 드물게 높은 經濟成長率을 유지하여 왔으나 1992-1993년에 調整期를 맞고 있다. WEFA Group은 日本經濟가 1994년부터 일단 調整期를 벗어나 다시 先進圈에서 가장 높은 4% 이상의 實質 成長率을 回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經濟成長을 이룰 경우 1998년의 名目 GDP 규모는 5조 2,707억 달러, 1인당 GDP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약 4만 1,600여 달러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東北亞 核心協力圈 국가들의 높은 經濟成長의 결과는 곧 이 지역에 막대한 資本과 技術이 量的 및 質的으로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과 기술은 東北亞 經濟圈 또는 經濟協力圈의 形成과 발전을 刺戟하는 效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東北亞의 資本 및 技術 需要國들이 核心的 協力圈으로부터 그만큼 쉽게 자본과 기술을 供給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것을 뜻한다.

韓國, 臺灣 및 日本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資源貧國이면서 力動的 經

濟成長과 産業高度化를 이루어 왔다. 이 세 나라는 工業化의 進展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로 각종 資源의 需要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直面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중요한 經濟政策課題의 하나는 높은 對外的 資源依存度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長期的인 資源供給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따라서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中國, 러시아, 北韓 및 몽골은 韓國, 臺灣 및 日本에 대한 資源供給源으로서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資源保有國은 과거 社會主義의 資源浪費的 産業構造가 深化되어 있고 資源의 開發을 위한 資本과 技術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資源의 輸出量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中國, 러시아, 北韓 및 몽골의 資源은 貿易을 통한 單純 輸入보다 開發輸入이 필요하다.

韓國, 臺灣 및 日本은 天然資源뿐만 아니라 勞動力 不足과 높은 賃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韓國과 臺灣의 賃金上昇率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1985년을 100으로 한 賃金指數는 1992년 한국이 294.5로 연평균 16.7%이고 臺灣은 210.9로 연평균 11.2%이다. 中國과 北韓의 底質勞動力은 韓國, 臺灣 및 日本 企業들이 中國에 進出하고, 北韓에 대한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게 하는 주요 誘引要素이다. 더욱이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는 韓國, 臺灣 및 日本의 資本 및 技術과 中國·北韓의 低質 勞動力을 쉽게 결합시킬 수 있고 輸送費用을 절감할 수 있는 利點은 資源開發을 통한 동북아 經濟協力の 潛在力을 매우 크게 하는 중요한 要因의 하나이다.

결국 동북아지역에 經濟協力體制가 구축된다면, 그것은 局地的으로 分散된 아시아-太平洋 經濟의 活力을 집중시키는 求心力을 갖게 할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日本, 中國 및 러시아 極東地域이 東北亞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經濟力과 經濟的 潛在力이 집중되고,

둘째는 경제발전 정도에서 이들 경제 간의 隔差와 異質性을 調和시킬 수 있는 韓國, 臺灣 및 香港이 中國經濟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이 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力動性을 집결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IV. 東北亞의 多角構圖에서의 韓國-臺灣의 協力方向

1990년대의 시작과 함께 크게 再編되고 있는 東北亞 國際秩序는 과거의 政治軍事的 論理에 입각한 對決 중심 構圖를 經濟中心의 논리에 입각한 相互 競爭과 協力體系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美國과 日本은 새로운 國際關係의 형성과정에서 自國의 利益과 世界經濟秩序의 調整者 내지 監督者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東北亞地域에서의 役割分擔을 摸索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내의 정치와 경제문제에 얽매어 국제문제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임하면서 가능한 협력구도 속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전망이다. 中國은 經濟改革과 開放의 幅을 넓혀가면서 自國의 經濟力 強化에 주력할 것이다. 中國은 1997년 香港을 返還받고 韓國, 臺灣, ASEAN 등과의 連繫를 통해 급속한 經濟成長을 도모하여 日本을 따라잡을 수 있는 底力을 키우는 한편, 아시아 NIC's와 日本의 中國에 대한 投資競爭을 誘導할 가능성이 크다. 그와 같이 될 경우에 中國으로 資本과 技術의 移轉이 증가하고 中國市場에서의 韓國-臺灣-日本간의 競爭이 激化되는 部門이 많아지게 될 것은 自明하다. 이러한 狀況의 長期化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經濟規模가 작은 韓國과 臺灣에 不利하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東北亞 國家들이 自國의 利益 확보에 주력하는 동안에 規

模의 經濟性과 範圍의 經濟性을 구축한 NAFTA, EU 등 地域共同體들의 막강한 經濟力은 地域協力の 結束力이 脆弱한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通商上의 壓力을 加重시킬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이에 對應해야 할 必要性이 증대됨에 따라 中·長期的으로 새로운 經濟圈의 形成을 加速시킬 可能性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北美나 유럽의 對應勢力으로서보다 아시아-太平洋 經濟協力體制와의 調和를 摸索하는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東北亞에 새로운 經濟圈이 形成되는 경우에 그것은 이 지역의 政治, 經濟의 力學關係로 보아 블럭화 형태가 아닌 開放的인 性格을 갖는 自由貿易地域(FTA)의 性格을 갖게 될 可能性이 많다. 따라서 東北亞 經濟協力體의 구축은 美國과의 競爭이나 摩擦보다는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北美經濟圈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여 北太平洋을 통한 經濟協力을 더욱 쉽게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役割性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동북아시아의 블럭화가 自國의 世界化(globalization) 戰略에 배치되고, 이 지역의 블럭화에 의한 日本의 實益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 影響力이 막강한 美國과 불필요한 摩擦의 소지를 만들 것을 우려하여 消極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日本의 이러한 立場의 內面에는 對美 摩擦보다 東北亞地域協力에 앞장섬으로써 막대한 開發費用의 出捐負擔을 지게 될 위험을 피하겠다는 實益追求 意圖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日本의 對東北亞 戰略은 自國利益을 확실히 보장하는 프로젝트에 選別的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日本의 이러한 戰略의 예로서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간에 琿春-자루비노(Zarubino) 철도와 항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자 재빠르게 中國과 合作으로 琿春市에 圖們江開發實業有限公司를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 日本은 東北亞經濟圈이 形成되는 경우에

이 지역 국가로서 불가피하게 참여하기는 하나 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日本의 이와 같은 對東北亞 戰略이 短期間에 180도로 修正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經驗을 가지고 東北亞의 多角的 經濟協力圈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韓國과 臺灣뿐이다. 韓國은 地理的으로 東北亞의 中心部에 위치하고, 臺灣은 東北亞에서 太平洋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香港 및 中國의 對外開放 窓口인 經濟特區들과도 인접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經濟發展이 中間段階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先進圈과 後進圈을 연결하는 架橋 역할을 담당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東北亞 經濟協力體의 구축이 피할 수 없는 課題라면 韓國과 臺灣은 가급적 빠르게 이에 대해 진지한 接近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東北亞 經濟協力は 韓國과 臺灣經濟의 先進化를 추진하는 데 유리한 與件을 提供하기에 充分하다. 첫째, 두 경제는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多樣化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東北亞 經濟協력을 통해 美·日 先進國과 協力分野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世界經濟의 불러화로 輸出與件이 계속 惡化되고 있는 상황에서 海外市場 多邊化 및 擴大效果를 얻을 수 있다. 셋째, 安定的 資源供給源의 확보도 기대된다. 넷째, 東北아시아의 協力 構圖는 政治的 安定基調 위에서 經濟協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經濟協력을 통해서 政治的 安定化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南北韓關係와 中國·臺灣 兩岸關係의 각기 改善과 經濟統合 내지 統一의 基盤 造成에도 적극적인 貢獻을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東北亞 經濟協力體制의 構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쪽이 中國과 北韓이라는 점에서 韓國과 臺灣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中國은 러시아와 北韓의 國境에 共同投資로 經濟特區 또는 自由

貿易加工區를 설치하여 多角的 協力體制를 구축해 나간다는 戰略을 驅使하고 있다. 吉林省 琿春市와 豆滿江 流域을 중심으로 多角的 協力體制에 바탕을 둔 開發計劃을 具體化시키고 있다. 北韓은 羅津과 先鋒 地區를 自由經濟貿易地帶로 개발하여 外國의 資本을 유치하고 淸津, 羅津 및 先鋒의 항구들을 통해 韓國, 日本, 러시아 極東 및 中國 東北3省을 잇는 東北亞의 交通中心地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中國과 北韓은 UNDP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에 편승하여 東北亞地域開發의 多者間協力 基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두만강유역의 중국과 북한에 인접한 Khasan과 Posyet뿐만 아니라 Vladivostok까지를 TRADP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 지역개발은 동북아지역개발의 일부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물론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東北亞地域共同體 結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東北亞 經濟協力の 試金石이 될 素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意義가 크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韓國과 臺灣 經濟의 先進化와 分斷狀況에서의 對立과 葛藤構造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肯定的 期待效果가 큰 반면에 危險要素도 없지 않다. 가장 큰 위험성은 東北亞 經濟協력이 互惠的 國際分業體制의 特化構造로 定着되지 못할 경우이다. 東北亞 國際分業體制의 特化構造의 主軸은 先進圈-中進圈-後進圈의 三角構圖이다. 이 特化構造에 先進軸을 맡아야 할 나라는 日本이고, 中進軸을 형성할 나라는 韓國, 臺灣이며, 後進軸의 중심은 中國이다. 그런데 日本이 自國의 利益에 집착하여 東北亞 經濟協력에 消極的 姿勢로 一貫하고, 中國은 지속적 高度成長으로 規模의 經濟性을 확대해 나가면서 韓國, 臺灣과의 競爭 激化를 助長한다면, 特化構造의 互惠的 國際分業體制는 구축될 수 없다. 韓國과 臺灣이 이 경우를 放置할 경우에 두 經濟는 技術 및 産業構造上 對日從屬을 深化시키고 中國에게는 勞動集約的 産業을 거의 모

두 빼앗길 수 있는 兩面의 危險負擔을 짊어져야 한다.

더욱이 東北亞 經濟協력이 구체화될 때, 地域的 經濟協力에서 가장 보편적 방식인 自由貿易協定이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에 체결되는 경우를 想定해보자. 그 때 日本産業의 高度化 製品이 自由貿易의 對象으로 집중된다든가, 日本의 技術과 中國産 中間財의 域內移轉이 억제되는 조치가 취해지면, 韓國과 臺灣의 經濟的 實益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日本의 아카마즈요(赤松要) 교수는 동아시아경제의 分業化 모델로서 “기러기 행렬 모델”(雁行模式) 또는 “多層次 追從 모델”을 제안하여 日本이 先導하는 東아시아의 多角的 分業體系를 學論한 바 있다. 一角에서는 이 모델을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日本이 동북아의 互惠的 國際分業體制 구축을 위한 産業構造調整에 域內 國家들과 협력하는 적극적 政策轉換이 先行되지 않으면 그 모델의 적용은 東北亞 協力構圖를 日本의 支配構造에 從屬시킬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경제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韓國과 臺灣은 規模와 範圍의 經濟性을 갖춘 경제블럭들에 홀로 대항해야 하고, 실령 그것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事前에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황 아래서는 日本과 中國으로부터 엄청난 損害를 강요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韓國과 臺灣의 協力體制는 두 나라 모두를 위해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 協力體制는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이 前提되지 않는 경우는 雙務的 體制로 끝나기 때문에 實益이 크지 않다. 따라서 韓國-臺灣의 협력은 多角的 經濟協力體制 구축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兩國의 협력체제는 東南亞地域과의 經濟協力에도 加速度를 붙여줄 것이다. 최근 韓國의 輸出市場으로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및

주요 工業原料의 依存度 역시 적지 않다. 臺灣의 경우도 가장 뚜렷한 輸出比重 增加趨勢를 보이는 지역은 아시아이다. 더욱이 東南亞地域의 經濟協力體 구축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東北亞 經濟協力圈의 형성을 전제로 한 韓國과 臺灣의 共同對應을 요구하고 있다.

韓國과 臺灣은 지금까지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다른 나라들의 構想이나 立場을 觀望하는 자세만을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두 나라는 共同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公式立場을 정리하여 가능한 빨리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東北亞 協力基金'(Northeast Asian Cooperation Fund: NACF)이나 '東北亞 開發銀行'(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創設의 提案은 하나의 바람직한 예가 될 수 있다. 동북아지역은 社會間接資本 부문이 특히 脆弱하다. 이 부문의 건설에는 企業의 次元에서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참여하는 協力基金이나 開發銀行을 창설하여 동북아지역 社會間接資本 建設에 대한 妥當性 調査와 그 조사결과에 따라 多者間 協力에 대한 寄與度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부터 지원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東北亞 經濟協力は 훨씬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그러한 支援의 範疇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地域 開發計劃과 自由貿易地帶의 건설지원을 비롯하여 東北亞 海運港灣, 空港 및 通信의 連繫體制 구축을 포함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東北亞地域의 國家的 特性上 다른 지역과 같이 全面的 自由貿易協定體制로 들어갈 수 있는 與件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前段階로서 우선 域內 國家들의 自由貿易地帶를 연결하여 戰略的으로 産業發展에 필요한 資源, 技術 및 中間財를 우선 供給해주는 局地的 經濟統合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동북아의 局地的 經濟統合의 示範으로 먼저 韓國과 臺灣의

自由貿易地帶 連結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와 같은 戰略的 接近의 選擇이야말로 複合的이고 多樣한 效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 첫번째 期待效果는 世界市場에서 불필요하게 競爭이 激化될 수 있는 韓國과 臺灣의 産業에 대한 互惠的 構造調整을 촉진하고; 두번째 效果는 障礙要因이 많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現實化시켜 나가며; 셋째는 韓國, 臺灣 등 小規模 經濟로 하여금 日本과 中國의 틈바구니에서 經濟的 利益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네번째 效果는 美國과 아시아-太平洋地域의 여러 국가들과의 開放된 交流協力關係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V. 結 論

東北亞 經濟協力は 급변하는 國際經濟環境에서 韓國과 臺灣의 危險負擔을 最小化하고 利益을 最大化할 수 있는 方案을 選擇해야 할 戰略的 接近을 요구한다. 韓國과 臺灣의 立場에서 東北亞의 주어진 與件과 狀況을 考慮해 볼 때, 확실하고 分명한 結論은 排他的 屬性을 갖는 블럭화의 논리에 따라 東北亞 協力體 구축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데로 歸着된다. 따라서 東北亞 經濟協力は 아시아-太平洋 經濟協力(APEC)의 構圖 안에서 기존의 ASEAN을 중심으로 새로이 胎動하는 아시아自由貿易協定(AFTA), 美國이 主導하는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과 相互協力과 調和를 이루는 方向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南北韓 經濟協力體制와 臺灣-大陸 兩岸의 交流協力體制의 구축이 東北亞 經濟協力の 一環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것이 立證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論理에 입각한 東北亞 經濟協力の 政策構想은 각각 南北韓과 中國·臺灣 兩岸의 經濟統合을 念頭에 두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곧 政策의 實效性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韓國과 臺灣이 東北亞 經濟協力の 가장 큰 걸림돌인 財源을 세계 각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效果的인 方案을 제시하여 그것을 現實化시키고, 그를 통해 中國과 北韓등 北方地域의 脆弱한 社會間接資本과 自由貿易地帶 건설을 가속화시키며, 두 나라가 앞장서서 東北亞 自由貿易地帶를 잇는 局地的 經濟統合의 實現을 촉진시켜 나간다면, 그것은 곧 世界的 協力構圖 안에서 東北亞 經濟協力뿐만 아니라 南北韓, 臺灣-中國大陸의 分斷狀況을 經濟統合으로 바꿀 수 있는 戰略的 選擇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 姜萬吉·金成勳·吳勇錫 外, 『東北亞 經濟圈과 韓民族의 役割』, 서울: 西南財團·經濟正義研究所, 1993.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北京: 統計出版社, 1993.
- 金成勳·金泰弘·沈義燮, 『東北亞經濟圈: 21世紀 國家經營戰略』, 서울: 比峰出版社, 1992.
- 金昌男,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정책연구 92-29,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10.
- 小川和男·小牧輝夫 編, 『環日本海經濟圈』,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1.
- 孫炳海,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二期期待效果』 정책연구 92-25,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吳勇錫 外,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정책연구 91-20,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12.
- 日本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譜』 1991.
- 統計廳, 『韓國經濟指標』 1993.
- , 『主要海外經濟地表』 1993.
- 行政院 主計處, 『中華民國 統計月報』 1993年 各號.
- Campbell, Burnham O. "The Potential for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 Background Paper for the Second Conference on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n Changchun, China, August 29-September 2, 1991.*
- Goskomstat, *Narodnoe khozyaystvo SSSR, v 1990g*, 1991
- IMF·IBRD·OECD·EBRD,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Paris, 1991
- Spavochnik Goskomstata RSFSR, 1990g.
-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October 1993.